

낙농산업에 활기가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우리 낙농가들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일년간은 많은 낙농가들이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도 지난 한해는 우리 낙농업계가 그런대로 무난히 넘어간 한 해였다고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2007년 한 해는 우리 낙농업계에 어떤 바람이 불지 알 수 없어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김 남 용
본회고문

금년은 한미 FTA협상은 물론 지난 번 협상이 중단되었던 DDA협상이 재가동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국가수반께서 한·호 FTA, 한·뉴질랜드 FTA협상을 거론하여 연구과제로 연구 중에 있고, EU와의 FTA협상도 심심치 않게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낙농으로서 수년 전만 하여도 자급을 위한 낙농업이었기에 우리를 불안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국의 낙농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우리에게는 미국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로 다가와 있습니다. EU 역시 낙농제품의 생산이 소비를 앞지르고 있어 낙농산업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감액하는 등의 정책을 쓰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더욱 남는 낙농제품을 수출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FTA협상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앞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거론되고 있는 국가와 FTA협상이 체결되면 농업, 특히 낙농산업에는 치명타가 되는데도 일부 국민들, 위정자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우리 낙농인들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인 KBS의 뉴스시간대에 FTA협상체결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조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 그리고 낙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선대책 후협상'으로 만약 협상이 불가피하다면 하되, 협상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FTA협상에는 국내 농업과 낙농산업, 즉 국내산업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적인 협상에 농민을, 낙농인들을 울분케하고 길거리로 나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농선진국, 낙농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1위에 있는 국가와의 FTA협상은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을 구렁텅이로 몰아가 낙농가들로 하여금 생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낙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한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낙농산업을 지키는 것은 낙농가에 우선하여 정부 몫이며 또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가운데 비로소 우리 낙농가의 노력도 빛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이 유지·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뜻이 없는데 낙농가들이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그것은 허공에 화살을 날리는 격이라고나 할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언제나 정부에 대해 짐을 지키는 '개'가 되어달라고 주문을 하고는 합니다. 많은 국가는 짐을 지키는 개가 아니고 더 나아가 '이리'나 '늑대'가 되곤 합니다. 정부는 이리, 늑대처럼 남의 것을 획득하는 능력도 없다면 최소한 짐만은 지켜 도둑을 맞지 않게 하는 개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낙농가들의 힘만으로,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낙농산업을, 농업을 외세로부터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낙농가, 그리고 농민들도 최선을 다하되 정부는 국가로서의 국민, 그리고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한 '충견'의 역할을 정부는 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4만 5천호에 이르던 낙농가구수가 현재는 8천 500호로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신선한 우유를 비롯한 유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젖소가 최소한 72만두는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50여만두를 최고로 감소를 거듭하여 48만여두에 불과합니다. 낙농가와 젖소가 감소하면 혹시나 정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신선한 우유를 원하는 한,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을 외국산을 채우면서 우리 자급을 비중을 낮추어선 안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다고 하여 강대국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국토에 적은 인구를 가졌지만 힘 있는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토도 좁은데 그것도 두동강이 나있지만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운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낙농산업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낙농가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나라도 낙농강국이 되지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낙농강국은 다름아닌 최소한 자국민들에게 필요한 낙농제품 섭취량만큼은 자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낙농가의 권익을 위한 낙농가 개개인을 대신하여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전국단위, 또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농가는 그 조직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을 위하는 길이며 내가 생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낙농업의 발전을 위하는 길입니다. 낙농가가 있는 곳에는 낙농가의 권익을 위한 낙우회가 있고 낙농가들이 생산한 우유를 집유, 판매하여주는 낙농협동조합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생산자단체 낙농우유협회는 전국 각지의 낙우회를 관리하며, 낙농조합의 전국적인 조직으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습니다.



리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우리낙농산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유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미국도 낙농자조금
사업을 도입하여 우유소
비홍보에 박차를 가함으
로서 우유소비를 4%나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미
국을 자주 방문한 사람들
이라면 건물 높은 곳, 잘
보이는 곳에 걸려진 “더
많은 우유를 먹자”라는 입

낙농가의 수가 줄고 젖소 두수가 감소하는 것
이 추세라 하지만 우유소비가 정체되어 있는 것
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낙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999년부터 낙농자
조금사업이 시행되어 우유 소비 정체현상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6년부터
는 낙농자조금사업에 전국의 모든 낙농가들
을 동참토록 하여 우유소비홍보에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전 낙농가들이 낙농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보다 전국의 낙농가들이 하나로
뭉쳤다는데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수립될 때마다 의견들이 구구하여
실질적인 낙농정책은 세워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그야말로 선장없는 배,
또는 돛이 없는 배와도 같이 갈팡질팡하여 낙농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낙농자조금사업
에 전 낙농가가 참여하였듯, 우리나라의 낙농산
업, 낙농가를 위한 정책수립에 모두들 한 목소

간판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
유소비 저변확대와 더욱 적극적인 우유소비홍
보가 이뤄진다면 우유소비의 정체현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낙농자조금사업은 어느 특정 낙
농가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낙농가들 전체
를 위한 사업입니다. 중단없는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앞서서도 말하였지만
낙농관련조직들은 낙농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야 합니다. 낙농가로서, 또는 조직원으로서의
몹을 충실히 할 때 조직은 활력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낙농업에 활기
를 불어넣는 길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
는 안됩니다.

정해년에는 낙농가들이 거리로 나와 처절하
게 외쳐대지 않아도 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
다. 우리 낙농가들도 희망을 잃지말고 노력하
고, 또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을 영원한
산업으로 다지는 한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
력합시다.